

흥겨운 광주전통문화 한자리에

3일 빛고을체육관에서 한국민속예술축제

광주의 전통민속문화를 한자리에 볼 수 있는 흥겨운 축제가 3일 오전 9시30분부터 광주시 서구 화정동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 광주시지회(회장 김종)가 주관하는 이번 한국민속예술축제는 민속예술축제 광주시 예선대회를 겸한 행사로 농악(풍물), 민요(병창 포함) 등을 공연하는 지방문화원 및 문화예술단체, 전통민속예술팀 일반인 및 민속예술지원학교 청소년팀 20개 팀 500여명이 참가한다. 경연에 앞서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된 행사로 광주지역 국악감사협의 회 공연팀 '예다'의 무대와 지난해 대상을 수상한 대촌 칠석농악보존회의 칠석농악 시연도 함께한다. 한편, 일반부 대상 팀은 2012년 경복에서 개최되는 제53회 한국민속 예술축제에, 청소년부 대상 팀은 2011년 10월 여수에서 열리는 제18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광주시 대표팀으로 참가한다. 문의 062-527-1991.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교단생활 40년에 얽힌 추억 담아

김흥복 수필집 '가을의 길목' 출간



복성중, 전남사대교 교장 등을 역임한 김흥복(75·사진)씨가 20여 년 만에 수필집 '가을의 길목'(한림출판사 펴냄)을 출간했다. 읽으면 재미있고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글을 쓰고자 희망하는 저자는 이번 수필집에 '풍수지탄'(風樹之嘆) '양약과 춘인' '교단여적' 등 4부로 나눠 50여 편의 작품을 담았다. 작가의 진솔한 삶이 묻어있는 이번 작품집에는 특히 교단생활 40년에 얽힌 추억과 교육에 대한 열정, 사제의 정과 인간관계의 내면 등을 각종 예문과 자료를 바탕으로 엮어 읽는 재미와 생각할 수 있는 여운을 남기고 있다. 완도 출생인 김씨는 공주사범대학 국문과와 전남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고 광주·전남지역에서 40여 년간 교사로 생활했다. '문학춘추'에 수필로 등단해 수필집 '청산에 살어리랏다'를 냈다. 문의 062-372-275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는 지금 '詩의 바다'에 빠졌다

지난 31일 오후 1시 광주시 북구 동림동 작은도서관 동아리방에서 10여 명의 시민들이 시와 문학에 대한 토론을 펼치고 있었다. 광주 북구일곡도서관이 '2011년 도서관 문화작가 파견사업'으로 진행하는 작가와 함께하는 글쓰기 교실 '당신도 시인! 감각적 시 써보기!' 첫 시간. 이창수(광주대 교수) 시인이 참여작가로 나선 이 프로그램에는 30대 주부부터 50대 중반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해 문학적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최근 문학아카데미, 인문학 강좌 등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를 배우고 낭송하는 문학교실 열풍이 불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문학에 대한 관심과 감상을 넘어 직접 작품을 창작하고 즐기려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

일곡도서관·서구문화원 등 시 쓰기·낭송 교실 인기

학생·주부·60대 어르신까지... 감성 넘어 작품 창작도

이런 글쓰기 교실에 참여한 주부 김정자(56)씨는 "평소 관심이 많았어도 배울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 망설여왔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겨 오게 됐다"며 "시의 기본부터 차근차근 익혀 멋진 작품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을 주관한 북구일곡도서관 신진철씨는 "이번 과정은 문학에 대한 일반론 외에도 시 감상법, 시 창작방법론 등을 작가가 직접 지도하는 실용적인 강의"라며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학프로그램 형태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구일곡도서관은 8월부터는 용봉 작은도서관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학성이나 주부 외에도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시 배우기 열정도 만만찮다. 지난 4월 문을 연 광주 서구문화원(원장 강만)의 어르신 문화학교 '꿈꾸는 어르신 시를 만나다'는 매주 목·금요일 열리는 강의에 3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 프로그램은 양명희(현대문화센터 강사)씨와 문길섭 드림아트홀 관장 등 전문 시 낭송가가 진행하며 시인 등 문인을 초청한 인문학 강좌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강좌에 참여하면서 인생 2모작의 뿌듯함과 새로운 '끼'를 찾게 되었다는 임영록(64·서이슬(62) 부부)은 "시 낭송이 잃어버렸던 로망을 찾을 수 있게 해주고 집중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돼, 매주 수업시간마다 설렌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이번 강좌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영란(63)씨는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시를 암송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며, 앞으로 있을 무대 공연이 무척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순차적으로 시 낭송, 자서전 쓰기, 시극 등 다양한 강좌를 통해 기본을 닦고 오는 10월까지 교육과정을 마치면 유치원, 학교, 소외시설 등을 찾아 공연과 봉사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시 배우기 열풍을 타고 시낭송에 대한 인기도 더해가고 있다. '고운시 맑은 낭송, 시향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분기별로 시 낭송회를 열고 있는 광주 시낭송가협회(회장 이미영)는 요즘 회원도 늘었으며, 회를 거듭할수록 낭송회를 찾는 시민층도 넓어지고 팬까지 생길 정도로 호응이 좋다고 밝혔다. 문길섭 드림아트홀 관장은 이와 관련된 "겨울과 삭막한 삶 속에서 시와 낭송을 통해 마음의 위안과 잔잔한 깨달음을 얻으려하는 현대인의 감성이 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자연에서 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최재영 개인전, 내달 8~13일 서울 인사아트센터

성장과 순수, 자연과 현대는 서로 반대말은 아니지만 쉽게 어울리지 않는다. 어른이 되기 위해 아이들은 순수를 지拂해야 하며, 현대의 눈부신 발전은 자연의 파괴를 감수하기 때문이다. 순수와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서양화가 최재영씨가 8~13일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자연에서 자연으로'를 주제로 문명의 바벨탑이 높아질수록 사라져 가는 푸른 숲과 아이의 순수함을 형상화한 신작을 선보인다. 밝은 색채로 표현한 인형 같은 아이들의 얼굴에는 순수함이 남아있지만 이들이 처한 현실은 불안이 깔려 있다. 그는 조선대 회화과를 졸업한 뒤 영국으로 건너가 슬레이드 예술대학과 워싱턴 예술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다. 얼굴, 몸 등 인체에 관한 작업을 통해 인간의 사랑과 감정을 표현한 그림을 주로 그렸다. 문의 02-736-102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영선 '누드' 이한우 '통영향' 전시

광주 갤러리D 2~8일 갤러리 예가 소장품전

광주 갤러리D는 2~8일 '갤러리 예가 소장품'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갤러리 예가의 개관 4주년을 기념해 이 갤러리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모아 선보인다. 강연균·곡옥영·김일해·박영선·박기태·박상식·박성광·박병우·오승우·오승운·우재길·이태길·진양욱·정승주·조방원·진원장·최영환·최상중·허건·한봉호·황영성씨의 작품 등 70여점을 전시한다. 색채와 구도를 강조했던 고 박영선(1910~1994년) 화백의 '누드'와 전통의 색을 강조하고 있는 이한우 화백의 '통영향' 등 볼 만한 작품을 대거 선보인다. 이 밖에 꽃과 자연을 주제로 한 신소장품 중에는 오승우 화백의 '덕수궁 모란', 고 진양욱(1932~1984년) 화백의 '풍경' 등도 추천작이다. 문의 062-222-801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스쿨피아싱어즈 22번째 정기연주회

내일 문예회관, 아버지합창단 찬조 출연



스쿨피아싱어즈(단장·지휘 김성국 광주교육대 교수·사진) 22번째 정기연주회가 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새야 새야 파랑새야' '우리는 '고래사냥' '신자 되기 원합니다' '님의 노래' '기차는 8시에 떠나네' '꽃집의 아가씨' 등 가곡·가요·성가를 포함,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들려준다. 또 광주아버지합창단(지휘 윤원준)과 한승민·박학민 어린이가 찬조 출연한다. 스쿨피아싱어즈는 광주·전남 지역 초등학교 교사와 예비교사로 구성된 여성합창단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시를 배우고 낭송을 즐기는 아이들이 늘면서 광주에 시 창작 교실 열풍이 불고 있다. 사진은 서구문화원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르신 문화학교 '꿈꾸는 어르신 시를 만나다' 수업 모습.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매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매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구분	소재지	대지면적	건평	매가	비고
근린시설/원룸	소매	42,488.21181	100여	45억	의료장래지상
	매물	41,956.211388	21억	3억1천	양양지
	매물	41,203.308	2억4천	1억7천	근린주택
	매물	42,710.2416	4억	2억9천	3층근린주택
	매물	43,837.21004	32억	18억	병원,장래지상
	매물	44,026.2476	18억	12억9천	3층상가
	매물	44,781.21883	30억	13억7천	의원,병원지
	매물	44,401.21011	10억9천	4억9천	4층상가
	매물	44,533.21839	29억	20억	국립
	매물	44,324.2166	2억9천	6천8백	2층상가
아파트/빌라	매물	44,601.21664	5억	3억2천	3층전통
	매물	44,001.21679	5억9천	3억1천	3층전통
	매물	43,814.21678	41억	9억9천	10층고리
	매물	41,311.21169	1억2천	7천	2층주택
	매물	41,152.21144	1억7천	9천8백	2층주택
	매물	41,442.21154	1억7천	7천5백	2층주택
	매물	41,538.21246	3억3천	2억9천	지하,지상
	매물	41,206.21171	1억7천	1억1천	지하,지상
	매물	41,720.21202	1억9천	1억2천	2층주택
	매물	41,851.21178	2억9천	1억1천	2층주택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유망부동산
 이나 경제인행중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는 회사입니다.
전문상담 010-7570-7525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 ▶ 자연녹지(물류용) 공장지정함
 광산구비아동, 비아 IC에서 5분거리, 11,463㎡(3,468평) 3.3㎡당 70만원
- ▶ 계획관리지역 (물류용) 공장 기타용도가능)
 광산구 송학동, 나주 IC에서 3분거리, 21,914㎡(6,630평) 매매가 22억
- ▶ 계획관리지역 (전원주택, 연수원 공장, 창고, 투자, 기타)
 광산구 양동, 용성지동지 학원근로, 28,845㎡(8,726평) 대지 약4800평, 건축물 있음, 매매가 13억원
- ▶ 준주거지역 (병원, 시육, 임대용상가건물신축부지적함)
 화정동, 광소간도로변, 지하철역부근 대지1,520㎡(460평) 3.3㎡당 300만원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 ▶ 풍암동, 지상6층건물, 보증금1억2천만원 월820만원 매매가13억5천만원
- ▶ 용봉동 지상4층 보증금2억2천월810만원 매매가13억

수익성 좋은 다가구 주택

- ▶ 화정동, 4층건물, 원룸10실, 투룸3실, 쓰리룸2실, 4층 본인 거주 보증금9천 월400만원 매매가5억8천만원

공장 건물 매도

- ▶ 광산구 우산동, 광주공항 인근 대지2,975㎡(900평) 건평 594.5㎡(180평) 매매가8억

공성석곡 공장

- ▶ 대지 8754평
- ▶ 건물 2891평
- ▶ 감정가액 44억3천만원
- ▶ 매매가액 20억원(협의후결정)

〈대구〉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토지

- ▶ 본 광고물건은 전속 계약된 물건입니다
- T. 062)371-1900, 010-2006-0115
-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매가 : 협의 후 결정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광주에서 8분거리

공동중개환영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한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널 공원사거리)